

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저리로 지역기업 자금 부담 완화 부산시 추진 조선산업 상생 협업 업계·상공계, R&D 센터 등 논의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중대형조선사와 조선기자재기업, 지역상공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 제공

BNK부산은행이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대출상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방성빈 부산은행장이 직접 언급했다. 4~5%대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가 지역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상근 HD현대중공업 대표이

사, 최상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김중서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중·대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기업, 지역상공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시가 조선사 대표를 초대해 지역 기자재업체와의 가교 역할을 해줬다"며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이사장은 조

선기자재기업의 의견을 모아 부산시와 조선소에 몇 가지를 건의했다. 최 이사장은 >100여 개 조선기자재기업 부설연구소의 집적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선박 연구개발(R&D)클러스터센터' 건립 후 중대형 조선소의 적극적인 입주 >국제 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24)에 중대형 조선소의 부스 참가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따른 공동납품 지원 활성화 >부산 기능훈련원 설립을 부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선박 수주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력 부족, 온실가스 규제, 중국의 기술력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소개했다. 시는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사업 >국제 해양플랜트전시회 개최 지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사업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조선소 대표는 조선기자재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조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이 상생 협력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산 시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삼성전기, 2000볼트 MLCC 개발... 전기차 충전속도 빨라져

(적층세라믹커패시터)

급속충전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 고전압서 안정적 작동 2중 선포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 적용할 수 있는 적층세라믹 커패시터(MLCC)가 개발됐다. 삼성전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2000V(볼트) MLCC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이다. BMS는 배터리 전류 전압 온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내연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삼성전기는 이번에 고전압 BMS를 통해 극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MLCC를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점차 용량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고용량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기 위한 사용전압 역시 계속 높아진다. 현재 전기차는 주로 400V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최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순수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를 중심으로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800V 고전압 BMS는 400V보다 충전시간 단축, 차체 경량화, 설계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 이에 맞춰 800V 고전압 전기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마진 배 이상의 2000V 고전압·고신뢰성의 MLCC 탑재 비중 및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가 고전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은 2종으로, 2000V를 보증하는 3216 (3.2mm ×

1.6mm) 크기에 1nF(나노패럿·용량), 2.2nF이다. 삼성전기 컴포넌트사업부 장 최재일은 "2000V 고전압 제품 개발을 통해 자동차용 MLCC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고전압 MLCC 시장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BMS의 고전압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고전압 MLCC 시장 규모는 올해 40억 달러에서 2029년까지 약 110억 달러로 연평균 약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옥재 기자



17일 DB금융투자가 부산 해운대구에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점포 '해운대마린금융센터'를 열고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DB금융투자 제공

DB금융투자 "VVIP고객에 차별화된 맞춤 자산관리"

마린시티에 '해운대마린금융센터' 서울 수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DB금융투자가 부산 해운대구에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점포를 개소했다.

DB금융투자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이파크 9층에 프리미엄 점포 '해운대마린금융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해운대마린금융센터는 기존 센터지점에서 확장 이전한 점포다. 그동안의 자산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VVIP 고객 대상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김서원 DB금융투자 해운대마린금융센터장은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잘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부산에서도 서울과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K이노-SK E&S 합병 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자산 규모 100조 원대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이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 탐사, 정유, 석유 화학 제품 생산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SK E&S는 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했다. 양사 합병은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양사 합병으로 에너지 미래에너지 배터리 등 전기화 사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합병이 최종 확정되면 자산 100조 원 매출 90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등극한다. 지난해 매출액을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77조2885억원으로 SK E&S(11조1672억 원)의 7배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비슷하다. SK이노베이션이 1조9039억 원, SK E&S가 1조3317억 원 규모다. 합병비율은 1대1.2 수준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각각의 기업가치를 근거로 산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악성임대인 솜방망이 처벌... 절반 이상 임대사업·세제 혜택

HUG 대위변제 67명 자격 유지 최근 3년6개월 말소사례 7명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는 이들의 등록을 말소할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효력이 떨어진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127명 가운데 67

명(53%)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 이들 67명은 HUG에 7124억 원의 대위변제(악성 임대인 대신 갚은 금액) 손해를 입혔다. 1인당 106억 원 수준이다.

문 의원은 이들이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가진 채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그쳤다. 이에 문 의원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공개했다. 연합뉴스 기자

직원 자녀출산 팔걸어붙인 회장님 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이명근 회장 사재 출연해 장려금 세쌍둥이 낳으면 5000만원 지급

부산의 자동차 부품회사 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이 사재를 털어 출산 장려금(사진)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성우하이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우하이텍은 자녀를 낳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 한 명이 태어나면 1000만 원, 쌍둥이가 태어나면 2000만 원, 세 쌍둥이가 태어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성우하이텍을 창업한 이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 본사와 아산 성우하이텍에서 출산 장려금 혜택을 받은 직원은 모두 28명이다. 이들 가운데 쌍둥이를 출산한 두 명의 직원에는 각각 2000만 원씩을 지원해 모두 3억 원이



지급됐다. 성우하이텍 도종복 부사장은 "인구가 줄어들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다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회장님이 사비로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생률을 높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299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식 대성문산업개발, 21일까지 청약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대성문산업개발이 영도구 봉래동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조감도)의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대성문산업개발은 18~21일 나흘간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의 임차인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토지와 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어져 장기 임대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299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상이다. 오피스텔 88호는 이미 분양 완판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50세대 >49㎡ 90세대 >39㎡ 59세대이며, 보증금 비율에 따라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공사비 지원 대신 높이를 제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지어진다. 통상의 경우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가로 공급되는데, 이 단지는 그보다 낮은 70%대의 임대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오션뷰 조망이다. 부산항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인접해 실내에서도 편안히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또 10년간 이 가격에 임대료 인상이 없다.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돼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돼 전세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줄일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제한이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남포동 BIFF거리, 맥자골목, 흰여울마을, 자갈치, 용두산공원, 태종대, 강강이예술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 부산대교 등을 이용해 부산 주요 거점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추가지수(7월 17일)
▼ 2843.29 -22.80 코스피
▼ 829.41 -10.20 코스닥